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작품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drama@ntck.or.kr](mailto:drama@ntck.or.kr)

# 창작공간 공연출 작품공모 연출

---

## 창작과정공유 작품공모

bb

강보름

김미란

이진엽

99

---

2021.11.19.금

~12.5.일 소극장 판



국립극단

## 창작공감: 연출

동시대 화두를 주제로 연출가들의  
실험의 장을 펼칩니다.

현장의 연출가들과 함께 창작극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1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연극이 담아야 할 동시대의 화두로 장애와 예술(2021), 기후위기와 예술(2022), 과학기술과 예술(2023)을 연간 주제로 제시하고, 창작자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동시대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자 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 명의 연출가는 작품개발 과정 동안 창작활동비를 비롯하여 특강·리서치·워크숍·자문 등 필요한 여러 활동을 지원받으며, 창작과정공유 발표, 차기 년도 공연 발표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국립극단과 협업하게 됩니다. 연출가들은 주제와 신작 작업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로운 논의와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 방식이 아닌, 창작자들이 평소 계획을 씨앗으로 삼아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창작 과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 장애와 예술

참여 연출가: 강보름 김미란 이진엽

운영위원: 전강희(드라마투르그)

## 주요일정

### 2021. 1.-3. 공모 및 연출가 선정

4.1. 오리엔테이션

4.-7. 정기/수시 모임, 리서치

5.12. 강연: 코다(CODA)에 대하여, 이현화

6.24. 공동체상영회: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희

7.14. [리서치발표회] 관계자 대상

7.-11. 팀별 워크숍 및 연습

8.29. 특강: 다큐멘터리 연극, 전강희

9.3. 특강: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 김원영

[창작과정공유] @소극장 판

이진엽 <커뮤니티 대소동>

11.19.금-11.21.일

강보름 <소극장판-타지>

11.26.금-11.28.일

김미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12.3.금-12.5.일

12. 의견수렴과정

2022.3.-5. 제작공연 발표 @소극장 판

자료집 출간(예정)

## [창작공감: 연출] 장애와 예술

### 각자의 방식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세계들

전강희 [창작공감: 연출] 운영위원

강보름, 김미란, 이진엽 연출가와 첫 회의를 시작할 때는 봄이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연구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니 봄이 갔다. 무대에 오를 배우들을 찾고, 스태프를 꾸리고, 전문가 강연과 다양한 워크숍들을 진행하다 보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대본이 될 만한 뼈대를 겨우 갖추고 나니 그간의 창작 과정을 대중들에게 공유할 시간이 되었다. 공연을 만드는데 짧다고는 할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을 몇 번 경험했다.

처음은 4월 농인 아티스트로 구성된 핸드스피크 극단의 워크숍 공연을 보러 갔던 때이다. 내가 음성 언어가 없는 세계에 발을 들인 첫 순간이었다.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본이 공연 전날 제공되었다. 무대 위 극의 흐름이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눈앞의 장면과 읽었던 내용을 연결하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총동원했다. 나의 세계의 언어는 이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음성 언어가 없을 뿐 소리가 없는 곳이 아니었지만, 만약 내가 좋아하는 공연 보는 일이 아니었다면 마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김미란 연출가는 이 공연을 보고서 박지영 배우를 섭외했다. 핸드스피크 소속인 박지영 배우와 국립극단 소속인 이원준 배우가 연습하는 시간에는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대부분 함께다. 또한, 이 팀의 조연출 중 한 명은 농인이다. 나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면 농인들의 문화를 어렵곳이 체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농인들이 구사하는 언어 체계와 나의 언어 체계가 다른 것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농인의 수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 이전에 농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진엽 연출가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분들과 작업을 만든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퍼포머가 아니다. 다큐멘터리 연극에 등장하는 일상의 전문가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어느 여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모리(박규민), 트윅키(김경림)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활동지원택시가 도착하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그린다고 했다. 이날 이들이 들려준 나의 이미지가 워크숍을 진행해준 장혜진 안무가와 비슷하다는 말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장혜진 안무가는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시각적으로는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각이 중요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 팀의 공연은 어둠 속에서 관객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공연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전하는 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커뮤니티 분들, 배우들,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논의했다.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떤 손동작과 이미지와 설명은 어릴 적부터 전맹이었던 분들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도 했다. 관객으로 이곳을 방문할 시각장애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강보름 연출가의 작업에는 다섯 명의 퍼포머가 출연한다. 강현우와 고애리는 국립극단 시즌단원이다. 김지우는 굴러라 구르님으로 불리는 유명한 유튜버로 휠체어를 타고 있다. 안정우는 무용수로 청각장애가 있고 얼마 전 예쁜 아기를 낳았다. 이성수는 여러 번 연극 무대에서 공연했던 전문 배우이고 저시력장애가 있다. 김미란 연출가와

이진엽 연출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있는 출연진들과 공연을 만들고 있다면, 강보를 연출가는 어떤 한 공동체보다는 경계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강한 출연진들과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무대에 섰던 안정우를 예전에 직접 본 적이 있다. 이성수 또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김지우는 아직 10대였을 때 한 포럼의 패널로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사유의 깊이에 감탄한 적이 있다. 홍성훈 작가와 진행한 글쓰기 워크숍에서 발표한 글들을 통해서 이들이 경계를 힘겹게 넘는 순간들, 경계를 흐리는 순간들, 경계가 의미 없어 지는 순간들을 목격했다.

8월 29일에 나는 이 세 팀 모두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세 팀의 공연 형식에 레퍼런스가 될만한 몇몇 공연 형식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다.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있는 자리였고, 별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날 강연이 진행된 스튜디오들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아마 세 명의 연출가들과 프로젝트 담당자인 조유림 피디도 나와 비슷하게 이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날 '다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했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날의 경험은 각자가 만나고 싶은 관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배리어프리'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당장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봄부터 있었던 긴 시간 동안 다른 세계들을 만났다. 곁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세계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 들은 이 세계를 관객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네 번째 계절을 지나고 있다.





“극장에서 하는 첫 작업이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길 바랐다. 허구의 인물이 아닌 현실의 인물(커뮤니티)이 또 다른 현실의 인물(관객)을 만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 무대는 각기 다른 경험과 상상으로 해석될 것이다. 극장에 모인 모두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로, 아니 여러 타래의 꼬임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이진엽 <커뮤니티 대소동>

11.19.금-11.21.일

금 19시

토, 일 15시30분



연출 이진엽

소속 코끼리들이 웃는다

### 주요작품

<동네 박물관 시리즈> <창덕궁 새로보기 후원물> <201호  
아인슈타인이 있다> <몸의 윤리> <볼 것이 없다> <물질>  
<물질 2 물질하다가> <안녕, 광명> 24시간 공연 <세시에서  
세시, 네시에서 네시> <독산 여러분> 외

### 작업의 출발점

시각장애인분들과의 몇 번의 작업을 통해 시각/  
비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비시각장애인  
위주의 언어, 즉 시각 중심의 언어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언어를 시각장애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보는 것, 배제  
없는 소통의 언어를 찾는 것이 이 작업의 출발점이었다.

### 리서치 과정에서 변화된 질문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라는 양 극지점이 아닌,  
다양한 별들 사이를 교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 창작과정공유

7월부터 시작된 워크숍,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비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어들을  
나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움직임 워크숍, 글쓰기  
워크숍 등을 통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하는 공연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  
과정에서 '다름'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후  
같음과 다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중심' 찾기와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잡게 되었다.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로, 서로의 삶을 묻지 않고 몸으로 만나는 '몸의  
언어'를 찾고 있다.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각기  
다른 특별한 삶!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각자의  
몸으로 말을 하고, 공존의 감각을 이해한다. 연습실에서  
실체 없이 존재하는 관객들을 상상하며 기다린다. 공연을  
해야만 직접 만날 수 있는 실체로서의 관객, 그 특별한  
몸들에게 먼저 말걸 수 있기를, 서로를 허용할 수 있기를.

### 만드는 사람들

공동창작 김가은 김경림

김민서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이진엽

조재현 최선애 최원석

연출 이진엽

대본구성 장영

출연 김경림 김민서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조재현 최선애

박하늘(배우)

박한희(안무가)

이애리(배우)

장영(극작가)

장혜진(안무가)

조재현(커뮤니티)

최선애(커뮤니티)

허나영(시각예술작가)

### 스태프

공간·무대 송성원

사운드·음향 김성환

움직임 감독 밝넝쿨

조연출 최원석

### 워크숍 진행 및 참여

권오식(커뮤니티)

김경림(커뮤니티)

김민관(다원예술작가)

김민서(커뮤니티)

김시락(커뮤니티)

박규민(커뮤니티)



강보름 <소극장판-타지>  
2021.11.26.금-11.28.일  
금 19시  
토, 일 15시30분

\* 11.27.토 공연 종료 후 객석에서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에게  
‘미스핏(misfit)’이 무엇인지, 극장은  
미스핏을 드러내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소극장판에서 매일 접했다 퍼지는 이동식  
경사로와 스크린처럼 조금 더 유연한 극장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 미스핏(misfit): 개인과 환경의 물질적 배치가 상호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어떤 것



## 연출 강보름

### 소속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 주요작품

연극 <여기, 한때, 가가> <내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아니고:사과백화점> <모던걸타임즈> <제4회 10분희곡페스티벌> <우리가 고아였을 때> <레디메이드 인생>

#### 작업의 출발점

국립극단 무대에 장애인 배우가 출연한다. 장애인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온다. 이것이 당연한 풍경이 되려면 어떤 이야기와 장치, 관점이 필요할까. 다양한 사람들이 극장에서 만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배리어(장애물)는 무엇일까. 비장애중심적 공연예술계에서 함께 '핏(fit)'을 향하기 위하여 어떤 감각/태도가 필요한지 알아가고 싶다.

#### 리서치 과정에서 변화된 질문들

3명의 장애 배우와 2명의 국립극단 시즌단원 비장애 배우의 만남은 이번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 공연예술이 갖는 의미도 각기 달랐다. 각자 다른 세계에서 활동해온 배우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무대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배우들이 이 무대에 얼마만큼 개인으로 설 수 있을까 고민했고, 우리의 현실처럼 실제와 은유 사이 그 어딘가에 공연이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창작과정공유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5명의 배우들은 글쓰기, 움직임, 사운드, 보이스 워크숍과 인터뷰, 발표를 통해 각자의 무대와 미스핏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애/비장애, 시각, 청각,

뇌병변이라는 장애 내부의 차이를 곧바로 다른 단일한 감각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경계 어딘가에 극장의 언어와 감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중의 소외를 느끼는 경계인 정체성, 특정되지 않음에서 오는 은유를 키워드로 잡았다. 이번 창작과정공유는 이 과정의 일부를 담았다.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과 만나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 만드는 사람들

구성·연출 강보름

협력구성 고권금

오로민경

글·출연 강현우 고애리

김지우 안정우 이성수

#### 워크숍 리더

고권금(안무 워크숍)

오로민경(사운드 워크숍)

최정선(보이스 워크숍)

홍성훈(글쓰기 워크숍)

#### 안무 고권금

보이스·액팅코치

최정선

조명 박유진

무대 송성원

소리 오로민경

음향 김성환

영상 임리원

조연출 현림

#### 문자통역(연습)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이 공연에는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합니다.  
두 배우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까?' 두  
명의 배우는 극장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어떤 대화들을 나눕니다.  
관객들에게 제가 직접 마침표를 찍어주기  
보다 물음표를 남기며 이 연극이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김미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2021.12.3.금-12.5.일

금 19시

토, 일 15시30분

\* 12.4.토 공연 종료 후 객석에서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연출 김미란

소속 연극동호회 소구

### 주요작품

연극 <낭독의 목적> <영지>(2019,2020) <G의 영역>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좋아하고있어>  
<어항> <갈매기B> <구직> <사랑과 교육> <간이연극:  
그레고리 잠자> 외

### 작업의 출발점

첫 기획은 수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영지> 작업에서 수어 노래 장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수어 노래를 그 공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이유에 대해 수어번역가님에게 자세히 들었고, 그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공연을 마치고 수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공연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리서치 과정에서 변화된 질문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수어라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질문이 확장되었다. 이 공연의 등장인물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배우(농인 배우)와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배우(청인 배우) 2명이다. 두 배우를  
만나고 연습을 하며, 이 공연은 다시 ‘우리는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연극할 수 있겠지?’ 란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창작과정공유와 내년 제작공연까지  
계속 달려나가며 질문들은 계속 바뀌게 될 예정이다.

### 창작과정공유

두 배우가 3개월 동안 해온 워크숍의 결과뿐 아니라,  
워크숍 과정 중 나누었던 대화들이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화들이지만 대화들이 재미있길  
바란다. 때로는 블랙코미디, 때로는 부조리극, 때로는  
사실주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화들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무대 위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배우들이 올라서  
있고, 객석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관객들이 앉아  
있다. 배우와 스태프들은 배리어프리란 무엇인가, 이  
공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배리어프리 방식은 무엇인가에  
고민도 함께 해나가고 있다.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모두가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도 함께 나누고 싶다.

### 만드는 사람들

구성·연출 김미란

출연 박지영 이원준

조연출 도민주 박아름

수어통역 김보석

이화정(수어통역

협동조합) 남진영 황선희

조명 박유진

무대 송성원

음악 이향하

영상 헤즈킴

음향 김성환

### 워크숍 리더

강량원(연기 워크숍)

국은미(안무 워크숍)

김일환(수어교육 워크숍)

이향하(음악 워크숍)

##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 전강희  
참여 연출가 강보름  
김미란 이진엽

무대기술 총괄 김무석  
무대감독 김정빈 김태연  
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음창인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김수현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티켓 이현아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임지은 송솔 황지수  
김지수 박주은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이지은  
임예은 채지성

홍보물디자인 리프트오프  
(대표 이진우)  
홍보영상 필루미에르  
(대표 이화승)  
옥외광고 영기획인쇄  
(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프로필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  
과정 기록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  
과정 기록 영상 마크923

프로그램 디자인  
키오스크키오스크  
(대표 민진아)  
프로그램 인쇄 청산인쇄

작품개발 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조유림  
제작진행 홍혜림 김가은  
정예림

공연기획 총괄 김옥경  
공연기획 프로듀서 김훈일  
김정연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d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www.ntck.or.kr](http://www.ntck.or.kr)

